

중국 Int'l IT Exhibition 2003 전시회 국가관 구성 참가

협회에서는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 중국 대련(대련 쑹하이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중국 Int'l IT Exhibition 2003 전시회'에 국가관을 구성하여 참가했다.

매년 중국 대련에서 개최되는 이 전시회는 올해 중국대련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대련시정부가 주최하여 9개국 27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약 4만여 명의 참가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련 시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 활동으로 전시회 참여 규모가 매년 급성장하고 있으며, IT 종합 전시회로 급부상 중인 이번 전시회에 협회는 에스토, 씨코드, 크릭스, 에드샘, 네오텔레콤, KAT, 데이터링크, 씨티전자, 가온아이, 이노뷰 등 10개 업체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했다.

한국관 참가업체의 출품품목은 LCD TV 모니터, USB interface software, Optical Polishing 장치, RF Power Amplifier, VOIP 장비 & 보안장비, ERP Solution, 실시간 웹트래픽 분석 솔루션, Vibration Motor, Zoom Motor, ASP, Groupware, TFT LCD Monitor and TV main boards 등이며, 최종 상담실적 및 계약실적은 <표>와 같다.

업 체	상담건수	상담규모
에스토	16건	240만불
씨코드	23건	30만불
크릭스	12건	70만불
에드샘	30건	100만불
네오텔레콤	30건	50만불
KAT	25건	300만불
데이터링크	24건	20만불
CT전자	7건	30만불
가온아이	10건	20만불
이노뷰	30건	50만불
총 계	207건	910만불

이번 전시회에 한국관 참가 업체는 회사 및 제품에 대한 발표를 통해 현지 바이어들에게 한국 제품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중국 현지 매스미디어(Dalian Daily, New Business, Peninsula Morning Post, Dalian Evening Paper 등) 역시 전시된 국내 IT 업체 신제품 및 우수기술에 대한 좋은 기사를 게재하는 등 홍보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 관계자는 “한국관 이벤트 진행 및 공동 미팅룸 구성을 통하여 자사 홍보 및 바이어 확보에 유용하였다”라고 밝히는 한편 “중국 대련시 정부와 연결할 수 있는 정부 프로젝트 사업 현황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협회 최명선 부회장은 25일 중국 대련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중 IT 산업 협력 지속 협력, 한·중 행사 공동 개최를 통한 홍보 기회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협회는 전시회와 함께 26일 대련 쑹하이 Convention Center Hall 1에서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요녕성 MIC, 중국대련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대련시 정부가 후원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ETRI의 지경용 박사와 중국 대련시 신식산업국장 Liu Jiachen가 연사로 나와 한·중 각국의 IT 산업 현황 및 발전전망에 대한 발표를 했으며, 한국관 참가업체 6개사 및 중국 IT 기업 2개사의 기업 및 제품 발표회가 있었다.

한편 협회는 평가위원회를 개최, 정기적으로 상담결과 점검 및 수출실적, MOU, 기술공동개발 등 사업실적을 파악 및 보고할 예정이다.

또 중국 대련 CCPIT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 마케팅 활동과 참가기업 및 참가 예정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해외 전시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문의 ▶ 해외사업팀 : 02)580-0581)



미국 FCC, 협회 회원사와 간담회 가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30일 협회를 방문하여, 2층 회의실에서 하나로통신(주)·(주)은세통신 등과 함께 국내 유선 사업자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FCC 유선경쟁국 부국장(Senior Deputy Chief, Wireline Competition Bureau) Jeff Carlistle, 아시아지역 담당관(Asian Regional Specialist) Anita Day와 미국 대사관 경제과 2등서기관(Economic Officer & Secreretary, Economic Section) Bryant Trick과 경제과 담당관(Economic Specialist, Economic Section) 정숙영 씨 등 5명과 하나로통신(주)의 이상현 대외협력팀 수석 부장과 류인열 과장, (주)은세통신의 김기운 대외협력팀 과장 등 총 8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각 사업자별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국내 통신 시장 규제(regulatory concerns) 현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Jeff Carlistle FCC 부국장은 미국 내 통계 관련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협회와 공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의를 나누기도 했다.

(문의 ▶ 대외협력팀 : 02)580-0566)

이라크 Ali Allawi 통상장관, 협회 방문



이라크 임시정부의 Ali Allawi 통상장관이 협회를 방문했다.

Ali Allawi 통상장관은 지난 9일 협회를 방문하여 협회 회의실에서 협회 주요 회

원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이라크 Ali Allawi 통상장관과 Andrew Golezinowski(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CPA), Faik Abdul Rasool(Ministry of Planning) 등 3명과 협회 회원사인 삼성 SDS, 문엔지니어링, 팬택&큐리텔, 텔슨전자 관계자들이 참여, 이라크 관련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

은 후 이라크 재건 사업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문의 ▶ 대외협력팀 : 02)580-0566)

i-Safe · ePRIVACY 인증서 수여식 개최

협회는 지난 30일 협회 3층 회의실에서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와 개인정보보호우수사이트



(ePRIVACY) 취득심사를 통과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세계아이앤씨, 엔씨소프트 등 총 12개 사이트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정보보호 인증마크의 금번 신규 인증심사에는 총 17개 사이트가 신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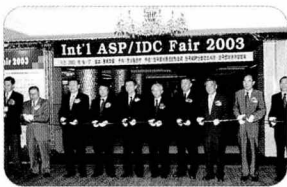
인증 심사는 약 2개월 동안 온라인 모니터링 및 회원가입 테스트, 서류심사 및 사실심사, CEO 면담 등을 거쳐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위원장 최명선)의 최종심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이번에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를 취득한 업체는 (주)신세계아이앤씨(대표 권재석)의 신세계몰과 (주)카임(대표 박승렬)의 나이스이몰이며, 개인정보보호우수사이트를 취득한 업체(기관)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대표 손언기)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NHN(주)(대표 이혜진, 김범수)의 엔토이, (주)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의 리니지2, (주)신세계아이앤씨(대표 권재석)의 신세계몰, (주)아이러브스쿨(대표 현명호)의 아이러브스쿨, 디엠엔정보기술(주)(대표 신재풍)의 제트이사, (주)네오플(대표 허민)의 캔디바, 하나코비(주)(대표 김창호)의 락앤락, (주)인포텍스(대표 권훈)의 인포텍스, 미르아이에스씨(주)(대표 김성진)의 한방미디어가 개인정보보호우수사이트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현재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취득업체는 총 38개 사이트, 개인정보보호우수사이트는 총 102개 사이트로 늘었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쇼핑몰 및 정보제공사이트의 경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정책이나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는 방법의 미흡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에 따라 수신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동의시기 및 동의내용의 명시 의무 이행 미흡 ▲ 사업자 신원정보의 웹사이트 초기화 면 표기 미흡 ▲ 관련법 및 지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문의 ▶ 정보화기획팀 : 02) 580-0532~3)

국제 ASP/IDC Fair 2003 개최



협회에서는 지난 10월 16일, 17일 양일간 롯데호텔에서 'Int'l ASP/IDC Fair 2003' 를 개최했다. 전시회와 컨퍼런스

구성된 동 행사에는 국내 대표적인 ASP전문기업 25개사가 참여하여 기업정보화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전시하였다.

ASP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방향을 조망하는 국제 전시회/컨퍼런스로는 국내 최초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첫째날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Keynote 연설과 자국의 ASP산업동향과 기술전망 및 국제간 협력방안에 대한 발표로 시작되었다.

한국ASP산업컨소시엄의 서진구 회장은 'ASP는 기업 정보화 최적의 모델' 이란 주제로 우리나라의 IT인프라 현황과 한, 중, 일, 싱가포르 국가간에 이상적인 ASP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서 Mock Pak Lum 싱가포르 1-Net의 대표이사는 '싱가폴의 ASP현황' 을 발표했다.

원넷싱카폴사는 현재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브로드밴드 인프라 공급업체로서 원넷의 인프라를 통해 한국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업체 또는 교육, 방송 등 콘텐츠제공 업체와 공동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싱가폴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적인 AS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SDS, 빅서브등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백기훈 과장은 '전통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 고도화 계획' 을 통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보화지원사업

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IBM 코리아의 박승하 전문차장은 'IBM의 e비즈니스 온 디맨드를 통한 ASP발전 모델' 에 대한 발표를 했다.

일본에서는 일본ASP산업컨소시엄의 히로유키 야마다 부회장과 일본 오라클의 코지 아이바 부장이, 일본 큐슈 미야자키현의 요시다카 야노 상공노동부장이 일본 지자체의 기업정보화 현황과 한일간 협력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둘째날에는 국내 유치 대상의 컨퍼런스로 진행되었는데 제조, 건설, 의료, 물류유통, 섬유, 여행, 프랜차이즈 등 업종별 ASP 서비스 소개 및 성공사례가 발표되었고, ASP전문기업인 (주)코인텍(대표: 서진구), (주)빅서브(대표: 오병기), (주)오픈정보기술(대표: 이은준), (주)키컴(대표: 이윤규) 등 4개사가 수요가 초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문의 ▶ S/W산업팀 : 02) 580-0661)

배순훈 위원장 초청 정보통신포럼 개최



협회에서는 지난 10월 23일 하얏트서울호텔 로터스룸에서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배순훈 위원장을 강

연자로 하는 '제22회 정보통신포럼' 을 개최했다.

이 날 배순훈 위원장은 '동북아 시대의 공존을 위한 한국의 역할' 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현재 내수 감소와 세계경제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국·일본과의 기술·시장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기존 산업의 IT전환 및 신산업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확대를 위하여 동북아 Emerging Market를 향한 개방경제를 구현하는 한편 단순노동의 해외 이전과 국내 산업의 지식기반 경제로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략을 지원키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의 활동과 업무에 대한 브리핑도 있었다.

한편 배순훈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M.I.T. 공학 박사 수료 후 미국 Stanford와

M.I.T. 초빙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교수를 거친 후 대우조선과 대우자동차부품, 대우전자 등 기업체 대표 이사와 대통령과학기술 자문위원,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기업경영과 정부정책 수립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인물이다.

(문의 ▶ 대외협력팀 : 02)580-0566)

차세대 PC산업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5일 차세대 PC관련 산학연관의 상호협력 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기반조성을 위해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차세대PC산업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본 협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본격 활동하게 되는 협의회는 기술 및 표준화, 서비스 및 인증, 홍보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앞으로 산업계 공동의 기술개발, 표준화 및 시험 인증 지원활동, 콘텐츠 및 서비스의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신규시장 확대,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의장으로는 삼성종합기술원의 김준기 전무이사가, 부의장으로는 ETRI 김홍남 컴퓨터소프트웨어연구소 센터장, 가종현 SK텔레콤 무선포탈본부 상무, 고종석 KT차세대무선팀 상무, 김행우 삼성전자 무선사업단 상무 등이 선출됐다.

(문의 ▶ IT산업지원팀 : 02)580-0521)

리눅스엑스포2003 개최

협회 내 한국리눅스협의회는 지난 9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리눅스엑스포 코리아 2003'를 개최했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리눅스협의회(회장 최준근 한국HP 사장)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로, 국내외 5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HP와 한국IBM이 협력사와 함께 대구모 부스를 마련했고 포스테이타와 한컴 리눅스 등이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해외업체로는 이스라엘 젠드와 미국 몬타비스타, 노르웨이 트롤테크 등이 전시회에 참여했고, 세계 1위 리눅스업체인 레드햇은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실생활과 리눅스의 만남'을 주제로하여, 산업에 확산되고 있는 리눅스의 실제 도입 사례와 기술, 상품을 소개하는 세미나와 전시회가 다양하게 마련됐다.

(문의 ▶ S/W산업팀 : 02)580-0661)

중국 산동성 IT방문단 협회 방문



중국 산동성 IT방문단은 지난 10월 9일 협회를 방문하여 3층 회의실에서 협회 임원과 함께 양측간 IT협력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동성 신식산업청 徐永明 부청장 등 10명과 협회 최명선 부회장, 전략사업실 김춘석 실장 등 4명이 참석하여 연태사에서 2004년 6월에 개최 예정인 APEC E-Commerce Fair와 위해시의 핫볼 하이테크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 안내를 받았다. 또한 徐永明 부청장은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업체들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협회와 공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의를 나누기도 했다.

이 후 방문단은 협회 회원사인 팬텍, 이레전자산업을 방문하여 한국IT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생산 현장을 둘러 보았다.

(문의 ▶ 해외사업팀 : 02)580-0581)

인력개발센터, 수원공업고등학교와 산학협약 체결



협회 부설 한국인력개발센터는 지난 9월 29일 수원공업고등학교(교장 이보형)와 정보통신기술자 격 단체검정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공업고등학교는 인터넷정보검색사 자격 취득을 위

하여 10월 초부터 1, 2학년(약 2,000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했으며, 향후 전 학년(약 2,000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개설, 학생들로 하여금 졸업 전에 인터넷정보검색사 자격을 취득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이 협약을 계기로 신기술 분야에 대한 IT교육 활성화 및 자격취득을 위한 정보교환은 물론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향후에는 여러 분야의 IT자격 취득에 대한 권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공업고등학교는 각종 교육자료 및 검정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시행된 자격검정시험을 통하여 성적우수자 및 교사를 매년 선발, 상장을 수여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시행되는 IT전시회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앞으로도 센터에서는 전국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대학교 등 공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자격을 위한 단체검정 및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자격검정 1팀 02)563-6741)

언어-음성정보 기술·제품 전시 및 발표회 개최 안내

협회에서는 국내 언어음성정보산업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학연 관계자와의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언

어-음성정보 기술 및 제품 전시·시연회(La-SIT Fair 2003)를 12월 11일(목)에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 음성정보처리기술포럼이 주관하고, SKT, KT서비스개발연구소, 보이스웨어, LG전자기술원, ETRI, 전자신문사, 디지털타임스 등이 후원하여 서울교육문화회관(미정)에서 열리게 될 이번 행사는 국내 언어-음성정보처리 기술과 제품 전시 및 발표회, 음성정보처리기술 표준화 공청회, '언어-음성정보산업인의 밤' 등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일반참가는 온라인 신청(www.kait.or.kr)으로, 전시 및 시연회 참가는 협회 IT산업지원팀 (02) 580-0523, hsh@kait.or.kr로 신청하면 된다.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 안내

협회에서는 IT분야의 창의적 벤처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벤처창업 분위기 조성 및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 제안서를 접수한다.

참가자격은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및 일반인 등 예비창업자(개인 또는 팀)이며, 참가분야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정보통신서비스(IP, DB 포함), 임베디드 S/W, 기기 및 부품(S/W), 기기 및 부품(H/W) 등 정보통신 전 분야이다.

접수기간은 10월 14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이며, 교부 및 접수처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IT산업지원팀 (02-580-0525), 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8-2 동아빌라트 2타운 2층(우편번호 137-070)' 으로 하면 된다. 인터넷접수는 '<http://venture.kait.or.kr>' 에서 한다.

접수방법은 창업아이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인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내역은 대상 1팀에게 상장 및 상금 1,000만원과 해외 IT시장 견학이, 최우수상 2팀(각 500만원)과 우수상 5팀(각 300만원)에게도 각각 해외 IT시장 견학의 기회가 주어진다. 장려상 12개 팀은 상장 및 상금 각 200만원과 국내 벤처기업 견학의 기회가 주어진다. 자세한 문의는 '<http://venture.kait.or.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